

“비틀즈는 사람 마음 움직이는 음악 쓰고 노래했기에 사랑 받아”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 다섯가락 리더 이두현 씨

비틀즈 성공 뒤엔 숨은 조력자 있어...그 노력·가치 인정해줘야 우리 가요계 후배들 노래 잘 하지만 별다른 특색 없어 아쉬워

“1970년대 당시 세시봉은 단순한 음악 감상실이 아니라 젊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대중 음악의 메카였습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광주 호텔에서 지난 12일 열린 광주일보 제6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사로 나선, 198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 다섯손가락의 리더이자 경희대 겸임교수 이두현(54)씨는 “세시봉은 음악감상실이기에 앞서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잘난 척도 못난 척도 하지 않은 개성의 집합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창식은 오페라 아리아를 기타 반주에 맞춰 불렀으며 윤희주는 찬송가, 이장희는 최신 팝송을 세련되게 불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두현 교수는 자신의 히트곡인 풍선들

동방신기가 리메이크 한 사례를 예로 들며 자신을 “80년대 동방신기”라고 소개하는 등 강연 내내 압담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강연 중간 강의 내용에 언급되는 가수들의 히트곡을 연주하는 등 ‘콘서트형 강연’으로 리더스 원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교수는 이날 비틀즈 성공 스토리에 빛 대 한국 가요계 젊은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비틀즈는 불과 8년 활동한 게 전부지만 그들의 노래는 영원 불멸”이라면서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고 테크닉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 비틀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음악을 쓰고 노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한국 가요계 후배들을 보면 확실히 우리 세대 보다 노래는 잘 부른 다. 예로 복면가왕 같은 TV프로그램을 보

면 가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잘 부른다”면서도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대부분 별다른 특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틀즈는 말랑말랑한 노래에서 탈피해 인드음악, 전자음악, 클래식 등을 접목한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었고 조용필도 다양한 장르를 선보여 호평받았다”면서 “사람의 목소리는 제각각 달라 모창을 하더라도 색깔과 무늬까지 따라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틀즈의 노래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I want to hold your hand’, ‘Let it be’, ‘Hey jude’ 등을 연주하고 다시 비틀즈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이 교수는 비틀즈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은 조력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962년 데뷔한 비틀즈는 1970년 해체할 때까지 7년 7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로 빌보드차트 1위 곡만 20개, 일주일 평균 13억 원의 저작권 수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1위”라며 “악보도 읽지 못하는 비틀즈 멤버



다섯손가락 리더보컬이었던 이두현씨가 12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6기 광주일보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들 사이에 조지 마틴이라는 제작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비틀즈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3000번 이상 리메이크된 ‘Yesterday’의 경우 멤버의 반대에도

현악 4중주를 제안했던 조지 마틴의 결단으로 명곡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세계적인 명곡과 스타 뒤엔 항상 그들을 빛나게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 그들의 숨은 노력과 가치를 알고 인정해 줘야 한다. 그것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풍선’, ‘붉은노을’, ‘모나리자’ 등을 원우들과 함께 부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절도범 검거 돕고 응급환자 초기 대응 생명 구해

광주대 축구부 잇단 선행 눈길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축구부 학생들이 절도범 검거와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잇단 선행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축구부 강영훈(2년·DF)씨는 지난달 27일 절도사건 범인을 경찰이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다. 휴일을 맞아 고향을 찾았던 강씨는 집에 가서 동생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한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A씨를 보고 추격을 시작했다. 동생들과 함께 10여 분간 범인을 뒤쫓으면서 112에 신고해 도주 경로를 알려줘 경찰이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그의 선행은 해당 경찰서에서 학교로 ‘선행 학생 격려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축구부 김수환(1년·FW)씨는 지난달 8일 총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축구대회에서



절도범 검거와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선행을 한 광주대학교 축구부 강영훈(2년·왼쪽)·김수환(1년)씨가 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막았다. 당시 심판이었던 강씨는 경기 중 선수들끼리 충돌 후 넘어진 한 선수가 호흡 곤란 증세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뒤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강씨는 쓰러진 선수가 의식을 잃

은 상태에서 혀가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기도를 확보해 호흡을 안정시킨 뒤 119에 인계 했다. 강씨의 초기 대응 덕분에 해당 선수는 큰 부상 없이 퇴원할 수 있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현)는 최근 ‘제73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광주시치과의사회는 이날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유관단체장, 수상자 및 가족, 회원 및 가족,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강보건상 시상식과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구강보건상 시상식은 사회에 봉사하는 치과의사 유공자와 광주 초·중학교 건치학생 10명, 건치모자, 건치어르신 등을 선발해 시상했다. 또한 ‘2018년 초·중 치아사랑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한 글짓기와 포스터에 대해 시상했다.



박창현 회장은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치과의사와 광주시민이 뜻을 합쳐 한층 성숙된 구강보건의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노진영(전남복지재단 이사장)·백희숙(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연합회장)씨 장남 재명군 박희섭·장희경씨 장녀 소현양=6월23일(토) 낮 12시30분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55 홀리데이인 호텔 3층 컨벤션홀.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자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터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웰다잉(Well-dying)지도자 기본교육과정모집=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행복할 삶, 아름다운 마무리. 23일부터 매

에베레스트 등정자 3명 배출하고 학생산악운동 주도

전남대 산악회 창립 60주년

광주·전남 지역 산악운동의 요람 역할을 하며 수많은 산악인을 배출해온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전남대 OB산악회(회장 이은수)와 전남대 산악회(회장 임주희)는 오는 16일 오후 5시 대학 내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60년!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전남대 산악회는 1958년 6월 4일 전남대 산악반으로 창립됐다. 이듬해 무등산 규봉에서 광주 최초의 락 클라이밍(rock climbing) 강습회를 열고 세인봉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는 등 기술 등반의 길을 열었다.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등산 강습회를 개최하며 1962년 전남 학생산악연맹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63년에는 회지인 ‘악우(岳友)’를 창간하고 광주 등산학교에도 참여하는 등 학생 산악 운동의 중추적 기능을 해왔다. 진정한 알피니즘 정신의 실현을 위한 산



지난 2006년 에베레스트(초보로망마8848m)를 등정한 전남대 산악회 이현조·이형관 대원이 정상에서 산악회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대 산악회 제공>

악 활동도 계속해 왔다. 1971년 최창돈 회원이 제1차 마나슬루원정대에 참여해 지역 최초로 히말라야 원정에 나선 이래로 걸출한 산악인들을 배출하며 산악계 발전에 기여했다. 단일 산악회로는 드물게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 등정자를 세 명이나 배출했고, 고 이현조 대원은 지난 2005년 세계 최난도 거벽인 남가파르밧 루팔벽을 등정해 산악사에 빛나는 금

자탑을 쌓았다. 지난 1996년부터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도전해 완능하기도 했다. 현재 회원은 재학생 12명을 포함해 233명에 달한다.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지난 60년간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집을 발간하고 이를 영상을 통해 되돌아보며 선구배간 화합을 다진다. /정후식 기자 who@kwangju.co.kr

남부대 오세은 국제시데스코 뷰티테라피 경진대회 회장상

박지현 한국지부 회장상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 향장미용학과 오세은·박지현(3년)씨가 최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 국제시데스코(CIDESCO) 뷰티테라피 기능경진대회’에 출전해 각각 국제CIDESCO 회장상과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국제CIDESCO 한국지부 회장상을 받았다. 오세은씨는 뽀뽀테라피로 국제CIDESCO 회장상을 수상했으며, 박지현씨는 스킨테라피로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국제CIDESCO 한국지부 회장상을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오세은씨 박지현씨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푸른길통문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설원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은=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부음** ▲이광남씨 별세 유재복(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씨 모친상=발인 15일(금) 강진군 강진읍 산림조합 추모관 1분향소 010-3628-7468.

Advertisement for a funeral home (Green Funeral Home) with details about a service for a deceased person, including dates, times, and contact information.